

편집위원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김상배(서울대) 민병원(이화여대) 손열(연세대)
신범식(서울대) 신상범(연세대) 신욱희(서울대, 위원장)
이승주(중앙대) 이옥연(서울대) 이왕휘(아주대) 이용욱(고려대)
장인성(서울대) 전재성(서울대) 조동준(서울대)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세계정치15

발행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220동 504호)
전 화 02-880-6311
팩 스 02-872-4115
전자우편 ciscis@snu.ac.kr

초판1쇄 인쇄 2011년 8월 20일
초판1쇄 발행 2011년 8월 30일

펴낸곳 논형
펴낸이 소재두
편 집 소재천
등록번호 제2003-000019호
등록일자 2003년 3월 5일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7-77 한림토포프라자 6층
전 화 02-887-3561
팩 스 02-887-6690

ISBN 978-89-6357-116-4 94340
값 15,000원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에게 무엇인가? 최근의 그리스의 재정위기, 미국의 국가 부채 축소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세계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우려의 재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아시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좁게는 위기의 직접적 원인 규명과 국내·국제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에서부터 넓게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수립,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자본주의의 미래상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기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개별 국가 또는 세계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위기 이후 어떤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금융협력, 무역과 무역제도, 경제체제, 개발원조 등의 주요 분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상당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력이 전지구적이었던 만큼, 위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을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승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동시적 대응을 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경기확장 정책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양자 통화스왑협정 체결과 같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하는 한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로 대표되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 G20 정상회의 참여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병행하였다.

위기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 금융 분야였던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대해 이왕휘와 이용욱은 다소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이왕휘는 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이다. 이왕휘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과 불분명한 지역 정체성의 문제, 역외의 이해 당사자인 미국의 포용 여부 등 정치적 쟁점들이 미제로 남아 있는 한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이용욱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용욱은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용욱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 규범과 규제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진전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미국 및 서구 중

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변화를 가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우선 보호하려는 유혹에 빠지면서, 세계무역이 급격하게 축소된 바 있다. 문돈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히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역내 무역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대중국 무역의존도 또한 증가하였다고 본다. 향후 동아시아 무역질서와 무역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문돈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차원 등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질적인 변화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글로벌 불균형 원인론’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폄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태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체제로 탈바꿈해가는 중국과 일본의 변화가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미국 등 역외 시장의 축소와 국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이중의 변화가 중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도록 촉진하였다. 최태욱은 한국 역시 이중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재편해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강선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동아시아 '개발국가' 모델이 개발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중장기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개발국가' 패러다임이 향후 보편적 개발원조 패러다임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는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와 논쟁을 촉진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도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부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두 차례의 회의와 최종 발간에 이르기까지 격려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신윅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최종 발표회에 참석해서 통찰력 있는 조언과 제안을 해주신 윤영관, 임혜란, 김상배, 신범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의 출판을 맡아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논형의 소재두 사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사 나호성 군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이승주

Contents

005	서문 이승주
011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 이승주
045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_제도적 전진 또는 정치적 퇴보? 이왕휘
085	3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_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형성과 발전 이용욱
111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 _격변의 서막 혹은 찻잔 속의 폭풍? 문 돈
151	5 동북아의 내수 및 복지 중시 경제 최태욱
185	6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발협력 _개발 패러다임 이동과 동아시아 '개발국가' 강선주
I 자유 주제 I	
219	7 국경 개방 영향 요인 비교 연구 _생계 협정을 중심으로 강지운